

(설 화)

제 목 : 효자 왕산이 이야기
제 보 자 : 이 성 근 (남. 당 82 세)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
조사일시 : 1997. 11. 28. 이성근 가

내 용

왕산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유 그 홀어머닐 모시구 제 처허구 이럭케 세식구가 사는데 게 당채 그 그집 재산이 즈어머니 약시세허다가 돈푼이 나 있는걸 다 올리구 그럭케 부모에 효 노릇슬 허는데 당채 약을 그럭케 조래는 약을 모두 세면팔방에서 구해다 대접을 해두 당채 고칠수가 읍드래요, 그래 하루는 그사람이 두양주가 즐창 물을 떠노쿠 하늘에다 정성을 드린대요, 우리 어머니 좀 나케 해달라구 두분이다, 게 그럭케 매태를 했는데 하루는 한노인이 스읍 차저와서 말허길 그래드래요 아 택에 어머니가 좀 나시냐구 그래니깐 아휴 나킨 생전 약을 써두 안나시는데 우덜허면 좀 니까 그래 한가지는 있는데 몸니까, 그래니깐 저기 새때가 안즈문 그 새때 남구가 남구에 안즈문 남구에 그 한마리두 떨어트리지 말구 그걸 올라가서 새를 떨어트리지 말구 찍어다가 그걸 과서 디리문 그 약이 된다구 그래문 아마 효팔 불거라구 그래드래요, 그게 그 당신 어머니 한태는 그 수밖에 읍스니 아무 약이 읍다, 아 그래구 허드랍니다, 아 그래 그 한번은 참 이럭케 벌에서 날라와서 이 나무가쟁이가 새가 안는데 한때가 그냥 멍석때 거치 몰려와서 거기 안졌는데 나무가지가 휘두루 그냥 들땀벼 안드래요, 그래 절을 해가면서 어휴 저 새나 좀 어디루 날라가지 안쿠 내손엘 좀 남구에 꼭 부터 있었슴 조케다구 그래구 한탄을 했는데 아 참 올라가서 이럭케 나무가지에 매달린걸 찍으니깐 안날러 가드래요, 그래 이가지에 있는거 이가지에 있는걸 해서 꼭 부터 있는걸 한미리씩 떼서 물을 그냥 끌어노쿠 거기다 그 여러마릴 갖다 폭 과서 대접을 허니깐 아 그냥 씻은듯 부신듯허게 낫드래요, 그래길래 그아들에 효가있어서 하늘이 이럭케 내려 줬다구 그 왕산이라는 사람이 (제보자:하-하 웃으며) 그래서 그럭케 나서 아주 즈어머니가 평생 사셨다구 그런소리가 있서요, 그게 소학에 있서요 -----